



카메라 고발

서산시 성연면, 인도 관리‘빵점’



충남 서산시 성연면은 인도 관리가 전혀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단진입로 주변의 인도 관리가 전혀 안 돼 주민은 물론 화물차들 운전자들은 외지인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서산시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주민 A는 “주민들 보행로에 대해 제초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찾길로 내몰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성연면의 행정책임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CTN 취재진은 10일 공단 입구부터 교도소까지 인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보행자의 발걸음을 잡고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카메라 고발/CTN한성진 기자]

국방부, 군납화장품 업체들 농간에 속고 있어

성일종 국회의원, “국방부가 가짜 영수증에 속고 있는 것…군 마트 입찰 시스템 개선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가 업체들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입찰 선정 시스템은 사실상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영수증을 조작함으로써 가짜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날 성 의원은 본인의 집의시간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현재 군 마트에서 판매 중인 두 가지 화장품을 들어보이며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쯤일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성 의원이 들어 보인 화장품 중 하나는 시중가가 무려 56만 5천원이지만 현재 군 마트에서는 3만 8,930원에 팔리고 있다. 할인율이 93.1%나 된다. 나머지 한 제품은 시중가가 19만원인데 군 마트에서는 7,6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할인율이 무려 96%다.

이 외에도 현재 군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들은 대체로 시중가에 비해 할인율이 9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정말로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라면 군 장병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성 의원은 “현재 군납 입찰 시스템이 할인율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들에 의해 할인율이 조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마트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입찰 시에 할인율 50% + 품질 평가 50%를 합산해 군 마트 판매 물품을 선정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이 화장품 품질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평가에서는 각 제품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할인율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성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 업체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고 있다.

성 의원은 “몇몇 대형마트 내부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브로커 업체 A사는 군 마트에 납품하고 싶어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자신들의 매장에 입고시켜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둔다. 이후 화장품 업체들은 A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 후 그 영수증을 국군복지단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군복지단은 그 영수증을 근거로 화장품 업체가 제시하는 할인율이 90% 이상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높은 할인율 덕분에 업체들은 손쉽게 군 마트 입찰을 따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군 마트 시장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관께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셔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입찰을 따내는 업체들에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 할인율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장병 선호도가 어떤지, 바깥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인들의 복지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가금현 기자]

서산한서 로타리클럽, 봉사현장‘총재공식방문’

이취임식에 이어 총재공식방문도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 로타리클럽(회장 김주태, 이하 한서클럽)이 진정한 국제로타리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한서클럽은 지난 17일 서산시 장동(남부순환로 339-5)에 위치한 A 씨(기초생활수급자) 집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노화된 전기시설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국제로타리 3620지구 문상식 총재의 공식방문이 함께 이뤄져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됐다.

한서클럽은 회장단 이취임식과 총재공식방문 등 중요 행사를 봉사현장에서 개최해 타 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취임식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펼친 봉사활동 건수는 23회로 이 중 20건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봉사현장을 방문한 문 총재는 도배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회원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문상식 총재는 “지역과 지구를 넘어 한국 최고의 봉사클럽을 방문해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봉사하는 것이 국제로타리의 이념인 만큼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서 로타리클럽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한 표성완 서산지역대표는 “한서 로타리클럽은 서산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럽”이며 “특히 회원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로 화합을 다지는 명품 클럽”이라고 말했다.

한도현 한서 트레이너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클럽에 대해 지구 차원에서 포상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클럽과 소속된 회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총재는 “이번 회기에도 반영하겠지만 차기 회기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해 로타리의 이념인 봉사가 전 클럽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금현 기자]

제27회 서산시 시민대상 ‘한도현 씨’ 선정

사회봉사부문 수상 영예

충남 서산시 제27회 시민대상에 한도현(남.60) 씨가 선정돼 6일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대상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사회봉사 등 5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8월 한 달간 후보자 추천, 9월 중 공적조사 등을 거친 후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회봉사부문 대상자로 한도현씨를 최종 결정했다.

한도현 씨는 현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부이사장, 우령각시 도배봉사단 회장, 캄보디아봉사단 러브인캄포 전 대표,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위원, 한서로타리클럽 전 회장을 역임하는 등 28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다.

1993년부터 로타리클럽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집수리 및 도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청소년 장학금 전달, 재난재해현장 피



해복구 등의 봉사를 실천했다.

2012년부터는 캄보디아 국제 봉사활동에 참여해 서산지역 다문화 여성의 친정마을 돕기,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작은 도서관 건립, 운동장 및 놀이터 설치, 학용품 및 의약품 전달 등으로 시 위상도 높였다. 또 우령각시 도배봉사단을 창단해 서산 및 타시·군까지 방문, 봉사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장은 “시민대상은 시민 이름으로 수여되는 시에서 가장 값진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을 적극 발굴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시민대상은 올해로 총 4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가금현 기자]

서산시 농촌일손돕기 봉사자가 나선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한국농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

서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충남 서산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나섰다.

지난 15일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회장 박종범)와 서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대표 이경옥),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학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송금례 소장, 이성구 농협 서산지부장과 한농연 임원과 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농업 관련 노동자들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비 증가 등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을 찾던 중 농업계를 대표

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와 봉사단체를 대표해 서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공동협의를 거쳐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므로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자립적 기반을 다지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불문+팜’ 협약했다.

사업명 ‘불문+팜’은 자원봉사자의 영어표기 VOLUNTEER와 농민의 FARMER를 합성했으며, 3개 단체를 아우르는 사업단장으로 한도현 서자협 전 대표가 선임됐다.

맹정호 시장은 “자원봉사의 도시 서산시가 농촌일손돕기와 연계하는 자원봉사의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가는 만큼 기대하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 “고추가격 안정화” 정부에 수매 건의

전국 고추추산단지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축산부에 건의문 송부

올해 산지 고추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세로 태안군수가 고추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전국 고추추산단지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세로 군수는 지난 19일 영양군·의성군·청송군 등 전국 14개 고추추산단지 자치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추 정부 수매 실시’를 건의했다.

태안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고추추산단지에서는 총 4만 3369농가가 1만 274ha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의 올해 고추 생산물량은 약 2만 8061톤으로 전국 전체 생산물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고추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도시 고추 팔아주기 운동과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 TV 홈쇼핑 판촉활동 추진 등 통해 고추 소비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지자체의 노력

만으로는 많은 재고량을 소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작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내 주요 양념채소인 고추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가세로 군수는 고추 재배농민이 최저 생산비 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수매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세로 군수는 “고추는 지난해에 비해 생산물량은 증가한 반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돼 현재 판매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총 생산물량의 30% 가량인 8637여 톤의 고추가 농가의 창고에 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필 기자]